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구조분석

이 지 민(영남대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 부부 의사소통, 부부 친밀감)의 관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269명이었다. 총 300부의 자료를 배부하여 280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11부를 제외하고 269부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로는 가족분화, 부부 의사소통, 부부친밀감, 가족건강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관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AMOS 18.0의 최대우도추정법(ML)을 적용하여 통계적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신뢰도와 상관관계, 기술적 통계를 위해서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델의 모델부합도(RMSEA(.05~.09), CFI=.97, TLI=.95)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므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05~.09), CFI=.97, TLI=.95 등으로 나타났다. 초기 구조방정식 모델 경로계수의 유의성 결과,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부부 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가족건강성의 경로를 삭제한 보다 간명한 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경험에서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의 가족분화경험은 부부의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부부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의사소통은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부부 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원가족에서의 가족분화가 중요하나 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개입을 통해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